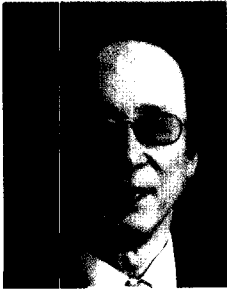


조경수목 산책 46

회화나무



임 경 빈

서울대학교 명예교수 · 농학박사

1. 회화나무의 시

(1) 나의 시

나는 지금 여의도에 있는 아파트에 살고 있다. 우리 집 앞에는 비교적 큰 규모의 공원이 있고, 그 공원에는 소나무를 주축으로 한 많은 나무들이 자라고 있다. 나는 이 공원을 무척 사랑한다. 우리 집 앞에서 멀지 않은 곳인 까닭에 나는 종종 나가서 휴식을 취하고 산책을 한다. 모두들 걷기가 좋은 운동이라고 하기 때문에 나는 이 공원을 의무적으로 찾는 성향이 있다. 그뿐만 아니라 이 공원에서 자라는 느티나무, 수수꽃다리, 단풍나무, 고욤나무, 화살나무, 개나리, 목련, 자귀나무 등등 수많은 나무들이 보여주는 그 아름다움에 나는 매혹되기도 한다.

이 공원에서 쉬다가 다음으로 몸을 옮기는 곳은 63빌딩이다. 63빌딩은 현재 우리나라에서는 가장 높은 건물로 되어 있다. 나는 공원의 자연을 즐기기도 하지만 이 63빌딩이라 하는 현대적인 건물의

현대를 또한 즐긴다. 여기에 가면 오만가지 사람들을 만날 수 있다. 발랄한 사람들, 아름다운 사람들, 청년, 소년, 지팡이를 든 노인들, 말하자면 사람들의 종합전시장 같다. 나는 여기에서 많은 사람들을 봄으로서 내가 살아가야 하는 방법을 발견할 수 있을 것 같다. 보는 것만으로도 난 인생의 공부를 즐길 수 있다.

공원에서 63빌딩으로 가자면 나는 차도 옆에 만들어진 보도를 걸어서 가야한다. 이 보도를 걷는 즐거움 또한 적지 않다. 그것은 이 보도에 따라 가로수로서 회화나무와 은행나무가 서있기 때문이다. 왜 한 수종으로 통일되지 않았느냐 하는 생각도 들지만 현재 이 두 수종이 골고루 섞여있는 듯 줄을 지어 서 있다. 은행나무도 좋고 회화나무도 좋다. 두 나무 모두 우리나라에서 오래 살 수 있는 나무로서 손꼽히고 있는 까닭에 장수의 상징을 이 보도에 따라서 발견할 수 있다.

나는 여기에서 우선 회화나무를 들어 이야기를 전개시키고자 한다. 나는 이 거리를 회화나무의 거리라고 마음먹고 있다. 회화나무가 은행나무하고 비교해서 어떤 뛰어난 특징이 있다던가 장점이 있어서 하는 말은 아니다. 그저 회화나무의 거리라고 이름을 붙이고 나는 이 거리를 걸어가는 것이다. 공원 그리고 63빌딩, 또 회화나무의 거리를 걷는 나의 산책코스는 무척 감미로운 것이다. 하루 한두 번 나는 이 거리를 걷는다. 의무적으로 걷는다고 해도 좋을 만큼 나는 이 거리를 사랑한다. 이 거리

를 걸으면서 회화나무의 시를 만들어 보았다.
 여기에 나의 회화나무의 시를 들어본다. 이 시는
 최근에 내가 내놓은 시집에 실려있는 그대로이다.

회화나무가 있는 길

회화나무 가로수
 그 아래 깔린 벽돌길
 천에서 어디
 생각조차 할 수 있었던가
 조선조 왕들보다
 더 대수받는 나의 길
 그 길을 가면서
 웃어 본다.

무엇을 쫓아대는
 비둘기를 보면서
 웃어 본다.
 병원의 간판을 보면서
 웃어 본다.
 빨리 걷고 있는 사람을 보고
 웃어 본다.
 우두커니 서 있는 사람을 보고
 웃어 본다.
 봉어빵을 들고 있는
 아이를 보고 웃어 본다.



▲ 회화나무 조계사(1999. 4. 8(음))



▲ 회화나무 조계사(1995. 10)

채양이 큰 모자를 쓴
 사람을 보고 웃어 본다.
 머리를 노랗게
 물들인 사람을 보고 웃어 본다.

즐기 비스듬한
 회화나무를 보고 웃어 본다.
 보도의 벽돌을 보고 웃어 본다.
 나는 나의 마음을 들여다보면서
 웃어 본다.

나의 물골을 하늘에 반사시키면서
 나는 웃어 본다.
 나를 보고 웃고 있는
 너를 보면서 웃어 본다.
 회화나무의 길은
 웃음의 길이다.
 나는 이 길을 좋아한다.

자기가 지은 시를 좋아하지 않을 사람이 누가
 있는가. 그러한 원리에서 나는 이 시를 좋아한다.
 웃어본다는 것 그것은 무척 중요한 일이라고 생각
 한다. 바보같이 웃어보고 이유 없이 웃어보는데 무

손 잘못이 있겠는가.

나는 이 산책길을 통해서 오가면서 크게 작게 미소를 띄어 본다. 회화나무는 나에게 웃음을 던져 주는 역할을 해준다. 그래서 나는 이 회화나무가 서 있는 가로를 무척 사랑한다. 나는 여의도에 산 지가 오래된다. 처음에는 팔뚝만한 가는 회화나무였으나, 지금은 줄기의 지름이 20cm 넘는 것도 있어서 이 나무의 강한 생명력 같은 것을 느낄 수 있다. 이 가로를 걸으면서 순간순간 웃어보는 나 자신을 나는 좋아해 본다.

겨울의 회화나무

회화나무의 겨울을 본다.

찬바람이

바닥 낙엽을 몰아가는데

수뚝 자란 나무가

절고(節高)의 신비 같다.

가지의 마디마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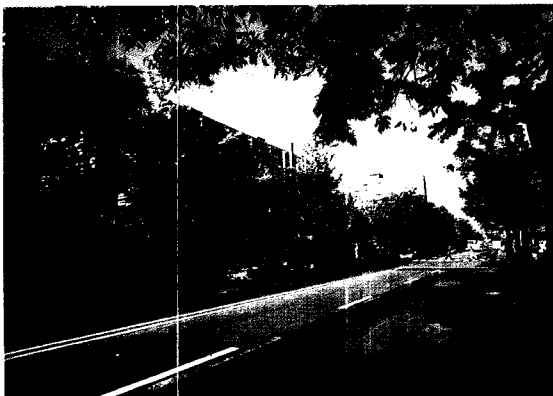
튀겨난 눈망울 눈망울

봄맛이가 속을 채우는데

염색체가 갈라지고

쫓개지는 세포의 공명세

영춘(迎春)의 음향이 들려온다.



▲ 회화나무 가로수 여의도(2000. 12)

없는데도 있고

있는데도 없는

생각의 나무인양

겨울의 회화나무

내가 겨울의 회화나무라는 제목으로 시를 쓴 데에는 회화나무가 오래 살면서 거대한 몸집을 만든다는 데 있었다. 나는 우리나라 국토의 곳곳을 찾아다니면서 큰 회화나무들을 많이 보았다. 회화나무는 품위가 있는 나무로서 예전 중국에서부터도 무척 대우를 받은 나무라는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다. 우람찬 회화나무의 겨울의 모습 그것은 장관이다.

회화나무는 알고 있다시피 낙엽수이다. 겨울에



▲ 회화나무 죽서루, 삼척(1994. 3)



▲ 회화나무 월성, 안강(1988. 6)



▲ 회화나무 대원사(1999. 7. 27)

는 잎이 떨어진다. 그 많은 잎들이 모조리 떨어져서 나무는 나목으로 변하고 만다. 봄이오면 이 나목들이 한량없는 잎을 다시 피우게 된다. 그 잎들이 그 나무 몸집 속 어디에 숨어 있었던 것인가. 참 신비스러운 일이 아닐 수 없다.

불교에 색즉시공(色則是空) 공즉시색(空則是色)이란 어구가 있다. 나는 잎을 떨어뜨린 회화나무를 볼 때 이 불교의 말을 항상 이어 붙여서 생각해본다. 색(色)이란 구체성을 띠고 있는 형태를 말한다. 회화나무의 잎, 회화나무의 가지, 회화나무의

몸뚱이, 모조리 구체성을 가지고 있는 형태이기 때문에 색이라고 말할 수 있다. 공(空)이란 형태의 존재를 부정한 뜻이 아닌가 한다. 말하자면 겨울의 회화나무는 잎을 상실한 공의 상태에 있는 것이다. 봄이 오면 이 공의 나무는 어느 사이엔가 거의 순간적이라고 말해도 좋을 만큼 색의 상태로 변하고 만다. 즉 무한한 잎이라는 형태를 가지게 되는 것이다. 따라서 없는 듯해도 있는 것이요, 있는 듯해도 없는 것이요, 라는 교훈 같은 것을 회화나무는 전해주고 있는 것이다.

우리는 나무를 쳐다볼 때, 그 나무로부터 배울 것이 또는 깨달을 것이 너무나 많다고 본다. 나무는 살아가는데 있어서 무한한 진리를 담고 있다. 우리가 유심히 그 진리를 찾아보고 깨쳐볼 때 배울 것이 너무 많다. 겨울의 회화나무를 쳐다보면서 그 나무가 안고있는 온갖 원리 같은 것을 생각해본다는 것은 좋은 일이 아니겠는가. 그래서 나는 겨울의 회화나무를 사랑하게 된 것이다. 그래서 나는 이 시를 만들어 보았다. **노건우**



▲ 회화나무 열매(1994. 8)